

John Oswalt 박사, Kings, 세션 12, 2부, 열왕기상 14-15장 2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 시작과 끝 부분의 다음 부분인 14장과 15장은 남방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북방 왕의 이야기와 변화가 없는 한 그의 실천이 국가를 어디로 이끌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 14장 21절부터 15장 8절까지에서 우리는 남방 왕들인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을 봅니다.

우리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을 보았고, 이제 남방 왕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야를 봅니다. 이제, 왕들과 역대기를 비교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서 이들 왕 중 일부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을 발견합니다. 역대기는 르호보암을 왕들보다 다소 더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여로보암에 비해 르호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을 존중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존중했다는 점인데, 이것이 역대기의 핵심 해석 요소이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약 150년 정도 지난 BC 4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왕좌에 다윗 왕조를 갖고 있고, 당신은 독립된 국가이며, 그것을 보장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좌에 다윗 왕조가 없습니다. 페르시아 총독이 있어요. 우리는 독립된 민족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후진국입니다. 우리에게 군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군대를 갖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역대기의 필자들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 것은 왕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왕국을 준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어도, 군대가 없어도, 독립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정기적으로 성전과 제사장, 레위인을 대하는 왕들의 태도를 기준으로 왕들을 평가합니다. 만약 좋았다면 그는 좋은 왕이었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마십시오. 자, 기억하세요, Kings는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있으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열왕기서와 역대기 두 책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르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둘 다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킹스는 이 사람이 우상을 숭배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교 숭배를 조장했습니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억압을 조장했습니까? 그는 나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돌을 만든 게 아닌가? 이 사람은 이교 숭배를 조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장려했습니까? 아하, 그는 좋은 왕이군요. 그래서 두 가지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열왕기의 질문에 기초하여 르호보암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르호보암에 대해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흠, 르호보암이 악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엔 그게 흥미로운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열왕기의 저자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르호보암을 약간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자신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백성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해 그들은 이전 사람들이 행한 것보다 더욱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산당 곧 신성한 돌을 세웠고 또 여기 높은 언덕마다, 모든 퍼진 나무 아래에 아세라 목상이 있느니라.

그 땅에는 남창들도 있었고 그 백성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역대기의 입장에서는 그는 성전을 옹호하고 성전 예배를 장려하려고 노력했으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승진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왕들은 백성들이 하기 시작한 일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솔로몬은 아내들이 이교 신들을 숭배할 수 있도록 도시 주변에 아내들을 위한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볼 때 르호보암은 그 일을 진압했습니까? 그는 솔로몬이 비극적으로 시작했던 일을 중단시켰습니까? 아니요,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나는 죄에 참여하지 않고 금지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며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 금지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나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서로 다르지만, 도움이 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이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에게 있어 주요 역사적 사건은 이집트 왕 바로 시삭의 출현이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시삭은 솔로몬의 아내나 조카의 형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이야기가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결론은 애굽의 바로가 와서 성전을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행동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자,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더 우연적인 것이며 저는 그것에 맞서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놀라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열왕기의 저자는 분명히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들과 거래를 했는데 어느 날 그들은 거래를 철회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또 왜 성경 공부 원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성서는 왜 그 점을 지적합니까? 시샤크가 금 방패를 가져갔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청동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비병들은 이 놈방패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 후 그들은 그들을 경비실로 돌려보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나는 왜 성경 기자가 영감을 받아 그런 점을 지적했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은 그 요점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서도 역시 형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왕이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음, 경비원과 방패가 그들과 함께합니다.

이런, 우리는 금 방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돈을 많이 써서 청동방패를 만들어보자. 양식, 양식.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전통적인 예배를 좋아하지만 동시에 형식이 반드시 메시지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상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이해를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언제 상징이 현실보다 더 중요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징은 언제 현실 전달을 멈추고 그 자체로 현실이 되는가? 그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한 모든 것 중에서 시삭이 와서 성전을 약탈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금 방패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것을 대신할 청동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나요? 궁금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죽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이 형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소개됩니다. 21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나이 41세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였습니다.

그녀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그의 어머니는 이교도였습니다. 솔로몬이 이교 신전을 지은 소녀들 중 한 명.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열왕기상하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보게 될 왕에 대한 전형적인 소개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마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9절에서 그것을 봅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으며, 다윗 성에 그들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였습니다.

그 여자는 암몬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시작 및 종료 공식입니다.

그래서 15장에는 그의 후계자가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니라. 흥미롭게도 그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야훼라는 뜻이다.

와, 좋은 것 같네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역대기는 압살롬을 말한다. 흠, 여기에 연관성이 있습니까?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는 가족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 세대가 빠진 것 같다.

최소한 마아가의 할아버지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왕은 아비살롬을 말합니다. 어쩌면 성경이나 다윗의 족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압살롬은 아닐 수도 있지만,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온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보다 먼저 행한 모든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이 niv인데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킹 제임스는 완벽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고 두 부분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왜 그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보다 먼저 행한 모든 죄를 지었나요? 그의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의 마음의 일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처럼 황소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일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지만 일부는 다른 것, 자신, 자신의 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이 모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경쟁자 없이, 한계 없이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는 가장 강력한 주장은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누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당신 안에는 당신의 한 부분이 원하는 모든 것과 싸우는 다섯 번째 기둥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4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며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워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과 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예, 적어도 유다의 왕좌에는 다윗 왕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가 끈질기게, 마침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는 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다윗 왕조의 왕이 왕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나쁜 결과가 - 음-흠 -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결과 - 그렇습니다. 패턴이 설정되었습니다. 기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패턴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